

호매칼럼



류준식 / 시인·작사가

수년 전 '좋은 나라 운동본부'에서 '베스트 친절시민찾기운동'을 한 바 있다.

그때 이달의 베스트 친절시민으로 박진아 박진주 박셋별 3세대 학생이 선정되었다.

'이들을 어떻게 키우셨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의 어머니가 답한 말이다.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라'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다.

누구나 겉모습 가꾸기에 얼마나 시간과 금전을 쏟아붓는가? 여자인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 연예인은 지상명령이 되어버렸고 취업자에도 단연 앞모습이 우선인 시대가 됐다. 그 덕에 연중 성형외과가 대성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라'

업이다. 그러나 여기 세 학생의 어머니는 수준이 달랐다. 겉모습 앞모습보다는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누누이 일렀다.

겉 향기가 아니라 내면에서 넘쳐나는 성품의 향기 인격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라 일렀다.

나 또한 돌아보면 지금까지 내 잘난 맛에 살아온 것 같다. 남이 무어라 생각하던 상관이 없었다. 자신의 낮내기에 전전긍긍했다. 알아주길 바라고 체면 살리기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남보다 더 이는 척 남보다 더 잘하는 척 없는 재주 내보이려 애쓰며 살아왔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알아주세요.' 외치면서 살아온 게

아닌가? 싫어 낮이 붉어온다. 부모들은 대체로 자식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사람이냐? 보다는 출세가 지상목표다. 인성이나 인격은 뒷전이고 오직 공부에만 열안이 되어있다.

"공부해라, 공부해. 공부해서 남주냐? 너 갖지! 죽어라, 죽어" 하며 돌아붙인다.

또한 젊은 부모들 세대에서는 자식 氣(기) 살리기에 여념이 없는 판인데 정말로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를 바로 알고 가르치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에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모두에게 자칫한 경종을 울리는 말이다. 본받아야 할 훌륭한 어머니상이다.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

고 실천해야 할 때임을 짚잡한다. 과연 어떠한 삶이 바람직한 삶이며 아름다운 삶인지 돌아볼 일이다.

옆과 뒤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만을 위하여 내 생각만을 고집하면서 살아왔던 내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고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내면이 더욱 살지도록 노력할 일이다. 인격의 향기가 풍성하도록 가꿀 일이다.

우리 모두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베스트 친절시민찾기운동'이 필요가 없는 세상을 바라는 왜일까?

- 나도 것처럼- 눈이 있으나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것처럼

입이 있으나 입으로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든지 말든지 말하든지 말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이 없다

나도 뉘 마음에 남아 것처럼 살고 싶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겨울철 화재예방 나부터 실천하자



조경빈 / 여수소방서 여성119안전센터

최근 잇따른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사회적·인위적 요인에 의해 자칫 대형 화재 및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화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 시 우리의 유일한 대피로이자 생명로인 비상구는 '생명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의 방치·적치가 빈번하며 비상구 폐쇄가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이뤄져 간접 살인 행위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고 있다. 소방의 단속만으로는 비상구 잠금 행위나 물건 적치 행위를 적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것을 막으려면 해당 건물 입주자들의 적극적인 비상구 안전관리 동참이 필요하다.

또한 겨울철은 특히 전기히터·스토브로 인한 화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으므로 동절기 각종 전기화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화재는 내 주변에서, 나로 인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부터 가져야 한다. 우선 화재예방 안전 점검부터 실시하자 예를 들어 기름이나 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 불에 잘 탈 수 있는 물질은 밀봉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화재의 경우 소방차량 출동이 지연돼 5분 이상 경과한다면 피해는 급격히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2차 연소 확대로 인해 인접 건물까지 불이 번져 해당 지역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소방출동료=생명도로'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스스로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많은 눈이 예상된다.

이럴수록 화재는 늘어날 것이 뻔하다.

화재는 한 순간의 방심으로 내 가

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앓아 간다. 무엇보다도 '화재 예방은 나로부터'란 인식하에 실천해 우리 모두가 화재 없는 포근하고 따스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택 전기 화재 예방수칙 숙지



이태영 /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2443건)과 전기히터(2186건)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다.

겨울철 난방 기구로 인한 화재가 잦아짐에 예방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겨울철에 주로 사용하는 난방기구 중에는 전기장판, 전기히터, 화목보일러가 대표적인 3대 난방기구로 꼽힌다.

먼저 전기제품인 전기장판 및 전기히터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전기장판을 접거나 접힌 상태로 사용 및 보관하면 안 되고, 전기용량에 맞는 콘센트나 고용량의 안전 멀티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전기열선을 사용할 때도 안전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수도계량기나 배관에 감아 동파방지 용도로 사용한 후에는 전원을 반드시 차단하고, 문어발식의 전기콘센트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화목보일러의 경우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화목보일러 설치 반경 2m 이내에는 가연물을 두지 말아야 하며, 벽과 천장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단열판을 사용하며 켜둔 채 장시간 외출은 하지 말아야 한다. 위 사항을 꼼꼼히 숙지하고, 가정 내 난방용품 및 전기시설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길 권한다.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화재발생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해,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알아봅시다. 병원응급실, 교통안내. 전대병원 220-5114, 조대병원 220-3114, 기독병원 650-5000, 보훈병원 602-6114, 광주한국병원 380-3000, 버스터미널 360-8114, 광주공항 940-0214, 대한항공 384-9660, 아시아나항공 607-6310, 철도안내 1544-7788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호남매일 www.honmae.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장실 (062) 363-0027, 편집국장 (062) 363-8800, 광고국 (062) 363-0005, 정·경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회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체부 (062) 362-6116, 인쇄취재도판테크 (062) 943-0140, 지역사회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달: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희망 새언론 새천년. 푸른언론의 길을지향하는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L 호남매일.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062)363-880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독자 의견·TEL: (062) 363-8800, FAX: (062) 362-0078, 광고문의·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http://www.honmae.co.kr, E-mail: honamnews@hanmail.net, honamaeil@naver.com